

빵을 친구 삼아 달려온 시간

라미듀빵코리아 이용숙 지사장

●●

요즘 '친구' 라는 영화가 전국을 강타하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친구란 참 소중한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아껴줄 때 값진 만남이 있다.
이 친구처럼 빵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한다.
라미듀빵코리아 이용숙 지사장은
빵과 가장 친한 친구로 사는 제과인으로
그를 만나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친구 사이는 서로 이해하고 아껴줄 때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된 '친구' 라는 영화는 부산을 배경으로 어려서 부터 같이 자란 4명의 친구를 통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라미듀빵코리아 이용숙 지사장(43)은 당당히 자기 삶을 개척한 사람으로 빵과 친구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남보다 늦게 빵과 만났지만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생활해 왔다.



▲ 이용숙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매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회의

국내 베이커리업계는 예전에 비해 많은 여성 제과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몇 몇 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활동은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라미듀빵코리아 이용숙 지사장은 베이커리업계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혁파하고 한 사람의 제과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펼치고 있다.

이용숙씨는 경기도 평택이 고향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게 됐다. 워낙 활동적이었던 그는 청소년기에 세계여행을 꿈꾸며 여행가였던 김찬삼 교수처럼 되길 희망한 적도 있었다. 한 때는 지리학과로 입학할 정도였지만 번역된 일본소설을 본 후 나름대로 흥미를 느껴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게 된다.

그는 82년 대학에 입학한 후 산악회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취미로 살았다. 인수봉, 선인봉 등을 두루 등정하고 도봉산은 20번이 넘게 올랐을 정도로 등산하는 것을 좋아했다. 원래 2남 3녀 중 중간 위치에서 자란 탓으로 그는 남다른 개척정신과 강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 3학년 1학기까지는 장래에 대한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취미와 생활만을 신경썼다. 그러던 중 큰오빠의 수술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게 되었다. 또한 어문학과 출신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학업에 정진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전에 나오는 말은 다 외울 정도로 열심이었다. 또한 한 밤중에 일본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듣고 말하는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학 4학년 때 친척의 권유에 따라 85년에 한국은행 입사 시험을 보았는데 그동안 주야로 열심히 공부

한 덕분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공무원, 교사, 은행원의 사고는 보수적인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용숙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지만 정작 자신은 은행일과는 안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갔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 직원은 사무 보조에 치중한 일만을 시켰기 때문에 일에 대한 애정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여성 제과인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며 하루 하루를 보내던 그는 무언가 전문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학원에서 NHK 뉴스 강의를 수강하면서 일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용숙씨가 베이커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연결의 다리를 놓아준다.

그가 다닌 학원의 강사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 고려당 직원들에게 일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용숙씨는 그를 통해 고려당 연구개발실 기술고문으로 와 있던 무로마찌씨를 소개받게 된다. 무로마찌씨는 그에게 빵은 여자는 힘들다며 양과자를 공부하라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베이커리 이외에 디자인 공부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시켜 일본 학교의 커리큘럼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래 장손 집에서 태어난 저는 제사가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대



▲ 그는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탐독한다.

한 거부 반응도 적었고 무로마찌씨의 권유도 있어 동경 제과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유학하기 위해 4년 동안 모은 월급과 퇴직금까지 모두 베이커리 공부를 하기 위해 투자했다. 일어 전공자인 그는 어학연수의 과정 없이 곧바로 동경 제과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제과인의 길로 들어선 만큼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이용숙씨는 동경제과학교 졸업 후 귀국해 고려당 개발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는 기본 업무 이외에 직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과 교류하는 일을 전담하는 등 바쁜 나날을 살았다. 그때 고려당 사장은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그를 학교 교사로 파견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일본에서 공부할 때 화과자를 처음 접하며 참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화과자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려당에서 저를 일본과자전문학교

보조교사로 파견해 그곳에서 맨투맨으로 화과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일본과자전문학교에 8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학교 선생님께서부터 특별한 지도를 받게 된다. 워낙 열심히 임했던 그를 일본 교사들도 아끼고 챙겨줘서 주위에서 “이용숙만 너무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화과자에 몰두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화과자 쿵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하나 둘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론을 겸비한 기술인이 되고 싶어

이용숙씨는 고려당에서 96년 외국 브랜드인 ‘라미듀 빵’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한국 책임자로 발탁됐다. 그렇지만 97년 회사의 부도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어떤 때는 인내의 한계를 느꼈지만 모든 것을 꺾고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점포를 운영했다. 외국인 사장 빈센트 부르레씨도 이용숙씨의 실력과 인격을 신뢰해 한국에서의 점포 운영을 모두 일임하고 있다.

“점포 운영을 맡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차분히 일을 풀어 나가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타 브랜드와 차별화 되면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그는 이론적인 면의 뒷받침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고 자각했다. 이런 자각에 따라 그는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에 진학해 조리학을 전공하며 이론적인 면을 확립해 가고 있다. 다시 만학의 길로 들어선 그는 학부에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며 기초를 쌓는 동시에 인식의 영역을 넓혀갔다.

“세미나를 통역할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동시통역 시에 직역에 치우진 통역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이해를 돕기 어렵습니다. 통역하는 사람 자신이 세미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내 베이커리업계에 만연한 일방적인 제품 따라하기를 지적하며 점포의 독자적인 색깔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자기 색깔이 없는 점포는 21세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베이커리업계에 이용숙씨와 같은 우수한 여성 제과인이 많이 나와 업계 발전에 한 몫을 하길 기대한다. [E]

〈글·사진 / jeong@mbakery.co.kr〉